



##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5년 7월 30일 (수)	보도시점	배포 직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퍼스트바이오, 엔비디아 인셉션 선정... AI 기반 신약 개발 혁신 및 고도화 가속

- 글로벌 AI 리더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혁신적 신약개발 워크플로우 강화
- 고유 AI 플랫폼 기반 창의적 물질 발굴 및 신약개발 효율성 향상 기대



주식회사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대표 김재은, 이하 '퍼스트바이오')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엔비디아(NVIDIA)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엔비디아 인셉션(NVIDIA Inception)' 프로그램에 합류했다고 30일 밝혔다. 퍼스트바이오는 이번 인셉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 AI 모델을 정교화하며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R&D 프로세스를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엔비디아 인셉션은 유망 스타트업이 AI, 데이터 사이언스, 고성능 컴퓨팅(HPC)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엔비디아는 선정된 기업에게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 툴(SDK)과 고사양의 하드웨어 GPU 기술을 비롯해 전문 교육, 기술 세미나, 글로벌 벤처 캐피털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저분자화합물(small molecule) 기반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선도 바이오텍인 퍼스트바이오는 AI 기술과의 융합으로 신약 발굴을 고도화하고 있다. 자사 히트물질 발굴 및 리드화합물 최적화 플랫폼에 AI 모델을 적용해 약물 탐색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존 방식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창의적인 신규 화합물 발굴 가능성도 또한 확대하고 있다.

퍼스트바이오는 이러한 자사 플랫폼에 엔비디아의 SDK 기술을 접목해 약물 설계의 정확성과 예측 신뢰도를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단백질 구조 예측과 후보물질 생성 등에 엔비디아의 플랫폼 ‘BioNeMo’를 적용해 신약개발 워크플로우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고 엔비디아 개발진과의 기술 피드백을 통해 AI 모델의 정밀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회사는 인셉션 회원 전용(Member-only) 기술 세미나와 NVIDIA GTC 등과 같은 국제 AI 개발자 컨퍼런스, 글로벌 커뮤니티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최신 기술 트렌드와 전략적 협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김재은 대표는 “퍼스트바이오는 제약지식 기반형 AI 융합 기술을 구축하며 신약개발의 정확성과 속도를 모두 갖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다”며 “AI 인프라를 선도하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약물 발굴의 신뢰도를 높이고, R&D 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퍼스트바이오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며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해 AI 기반 약물 발굴 플랫폼을 고도화 중이며, 최근 2년 연속 중기부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다쏘시스템(Dassault Systèmes)과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퍼스트바이오 테라퓨틱스]

퍼스트바이오는 2016년 설립되어 퇴행성 뇌질환, 면역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선도적 바이오텍으로 성장해왔다. 면역항암제 ‘FB849’는 2023년 미국에서 첫 환자 투약을 시작으로 임상 1/2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병용 투여 임상시험을 위하여 MSD로부터 PD-1 항체 ‘키트루다(KEYTRUDA®, pembrolizumab)’의 무상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파킨슨병 치료제 ‘FB-101’은 c-Abl 저해제로, 미국에서 임상 1상 단일용량상승시험(SAD)을 완료했다.